

## 헤럴드 기어 변호사

**HAROLD J. GERR**  
Attorneys at Law

자동차 혹은 트럭사고,  
척추나 디스크에 관련 된 사고,  
공사현장 사고, 뼈가 부러진 사고,  
법적으로 희생양이 된 사고,  
각종 상해, 사망사고

1-877-249-4600

47 Raritan Ave. Highland Park, NJ

## 은빛 요양원

풍요로운 노후의 삶을 도와드립니다

1호점 중부 뉴저지  
Eatontown

2호점 서부 뉴저지  
Pittstown

풍부한 경험과 수준 높은 전문가 서비스  
가정 같은 또 하나의 생활공간  
간호, 간병, 전문 재활치료  
한국문화 정서와 여가 활동

한국어 직통  
**732.770.0609**  
www.은빛요양원.com

16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

## 준 풀턴 부동산

908-295-7053

준 '윈출' 풀턴  
Sales Associate  
Re/Max Instyle Realty  
june@instylerealty.com

1378 Route 206 Suite 202, Skillman, NJ 08558 junefulton@remax.net

## KWIK 퀵 모기지

주/택/응/자/전/문

다양한 융자 상품, 전화상담 환영

Gabriel B Park (NMLS 1161224) Senior Loan Officer  
**Direct (908) 293-2215**  
gspark@kwikmtg.com / Licensed NJ NY PA CA FL CT MD VA TX

## VESTA·OH

Kitchen & Bath Renovation

### 부엌, 욕실 전문그룹

오영운 토마스 | m 917-662-8353 | kitchenoh@hotmail.com

## 은퇴플랜 및 재정설계 컨설팅

Advisors U Trust, LLC

401k, IRA, Annuity (개인연금)  
생명보험, 메디케어 & 건강 보험  
자동차 주택 건물 비즈니스 보험

**박가브리엘**  
Licensed in NJ & NY  
advisorutrust@gmail.com

**(732) 865-1597**

## 메디케어 무료상담

올바른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 박미원

Independent Licensed Agent

문의 전화 **908 655 5339**

## 이문식

검안과

Family Vision Center

Dr. Douglas M. Lee,  
Optometrist

각종 안질환 치료  
백내장 검사 및 녹내장 치료  
검안 및 시력 교정  
아동 시력 치료 및 시력 교정  
콘택트렌즈 및 안경 맞춤

**P. 732-393-1210**

1734 Lincoln Hwy.(Rt.27)  
Edison, NJ 08817  
에디슨 H-Mart 앞

## 에디슨 현대정비

Hyundai auto repair  
종합정비

Auto Repair • Service

김도영 (Philip Kim)  
C/P : 732-853-5696  
Tel : 732-543-1110  
1808 Woodbridge Ave.(Rt.514)  
Edison, NJ 08817

## HONORS REVIEW

East Brunswick

SAT, ACT, APs, Enrichment Programs

우성현 스테파노 **732-254-3349**  
3 Lexington Ave East Brunswick NJ 08816

## ND EAST BRUNSWICK

NEW IMAGE DENTAL LLC

444 Ryders Lane  
East Brunswick, NJ 08816  
Tel. 732-432-8388

J. Woo D.D.S.

## 강준한의원

(732)287-8881

1734 Lincoln Highway Rt.27, Edison  
에디슨 H-Mart 앞 확장 이전

진료  
안내

한의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통증과  
교통사고 후유증  
각종 환약(보약, 치료약)  
침, 뜸, 부항  
중국 전통식 지압

## 종합건축 AAMD construction

주택, 상가, 무료 상담 및 견적, 면허, 보험소지  
골지 아픈 문제(건축허가, 누수), 비닐 담장, 데크, 마루, 욕실, 주방,  
지하실, 상가 리모델 등 건축 전반에 책임시공(기본 1년 보증)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상당 교육 10% DC)

**732-964-9787**  
email: aamdconstruction@yahoo.com

## 가고파여행사

성지순례, 단체관광, 크루즈 전문

**201-302-0820**

353 Broad Ave. Suite 203 Leonia, NJ 07605

## BOYLAN

Funeral Home

Edison **732-572-0076**

**HYUNDAI**

**TOYOTA**

**KIA**

**NISSAN**

**Jeep**

**CHRYSLER**

**SANSONONE**  
AUTOMALL

BEST CAR, BEST PRICE

90-100 RT.1 Avenel NJ 07001

**Manny Kim**  
**201-852-3232**

## 성령 강림 대축일

2020년  
5월 31일



###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00 PM  
수 ~ 금 - 9: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00 PM  
일요일 (영어) - 8:00 AM  
(영어) - 10:00 AM  
(한국어) - 11:30 AM

###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 Tel: 732-356-1037  
# Email: office@edisonkcc.org  
# 근무시간: 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사시오

평협회장 한상철 빈센시오

#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요한 20,19-23

### 〈이번주 전례 안내〉

# 제1독서 사도행전 2,1-11

# 화답송 시편 104(103), 1~4과  
24~29, 29~30, 31과 34  
(© 30 참조)

# 제2독서 사도 바오로 코린토 1서 12,3~7-12-13

# 복음환호송 마태 28,19,20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요한 20,19-23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후렴: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주간 말씀 전례〉	제 1독서/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6/1/20	창세기 3,9-15,20	요한 19,25-34
화요일 6/2/20	베드로 2서 3,12-15, 17-18	마르코 12,13-17
수요일 6/3/20	사도 바오로/티모테오 2서 1,1-3,6-12	마르코 12,18-27
목요일 6/4/20	사도 바오로/티모테오 2서 2,8-15	마르코 12,28~34
금요일 6/5/20	사도 바오로/티모테오 2서 3,10-17	마르코 12,35-37
토요일 6/6/20	사도 바오로/티모테오 2서 4,1-8	마르코 12,38-44
일요일 6/7/20	탈출기 34,4~6-8-9 사도 바오로/코린토 2서 13,11-13	요한 3,16-18

## 미사지향

### 연미사 (봉헌자)

- 정영옥 (수산나) - 가족
- 김상기 (요셉) - 가족
- 조원봉 (빈첸시오) - 가족
- 장인석 (미카엘) - 가족
- 이화자 (마틸다) - 가족
- 김명자 (헬레나) - 가족
- 김교식 (야고보) - 가족
- 한정숙 (레지나) - 가족
- 김종전 (마르코) - 가족

### 생미사 (봉헌자)

- 오홍순(카타리나) - 오.사.모, 홍 비안네
- 전선희(다니엘라), 전선임(아네스) - 가족
- 유희자(베로니카) 빠른 쾌유 - 가족, 요셉회, 서경호(대건 안드레아)
- 박덕목(시몬) - 김동근(사도요한)

## 교무금 납부 안내

임영자(3-5)	정미카엘(3)	오현주(5-6)
이상화(5)	오용운(6-8)	박재영(5-6)
이창우(5)		
합계: \$1,340		

## 감사 헌금 납부 안내

임영자(\$300)	박재영(\$100)	정미카엘(\$300)
합계: \$800		

## 주일 헌금 납부 안내

합계: \$3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 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 Payable to OLM</li> </ul>		

## 2020 Bishop's Annual Appeal

- 교구청으로부터 받으신 Bishop's Annual Appeal 봉투를 직접 교구청으로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전달하시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헌금액은 지속적 복음화와 선교사업, 신학생, 청소년 양성 및 가난하고 소외된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되며 2020년 본당 할당금액은 \$35,000입니다.
- 3월5일까지 약정된 금액은 \$9,085 (26%) 입니다

## 공지 사항

#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 하여 모든 회의 및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단체장을 통해 전달해드립니다.

# 매일미사 책 배부 안내  
-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매일미사 책 배부는 잠시 중단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사제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732-356-1037

# 견진성사 신청자 모집  
-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견진성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또는 이서형(요안나) 선교분과장님께 연락바랍니다.

# 2020-21 예비자 모집  
- 예비자 교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또는 이서형(요안나) 선교분과장님께 연락바랍니다.

# 2020년 한국성지순례단 모집  
- 일시: 2020년 10월 20일 ~ 10월 30일(10박11일)  
- 지도사제: 이남웅(스테파노) 신부님  
- 순례지: 제주, 부산, 전주, 대전, 청주, 수원, 서울대교구 성지, 임진각 파티마 평화의 성당 남북통일 기원미사 후 서울귀환  
- 참가신청비: \$3,000  
- 신청방법: 여권카피와 예약금 \$1,000 (선착순 25명)  
- 신청 및 문의: 사무실 / 마리아 투어 212-594-7773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최규학 프란치스코, 고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김진철 요한, 오옥순 수산나, 최경삼 안나, 김경희 수산나, 오홍순 카타리나, 유희자 베로니카

## 성당 교무금 및 헌금 납부 방법

- 우편으로 납부**  
분실위험으로인해 체크만 가능하며, 납부하시는 분의 성함과 교무금, 주일헌금, 특별헌금을 각각 구분하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Payable to OLM)
- 현금으로 납부**
  - 1) 사제관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우편함에 넣어주시거나,
  - 2) 구역장님이나 대리인이 수거하여 사제관 우체통에 넣어주시실 경우 구역원과 구역장님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미리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3) 봉투에는 납부하시는 분의 성함과 위에서 설명드린 납부 목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Venmo**  
친구찾기로 "SBB-LEE"찾으시고, 프로필에 성당 사진과 Namwoong Lee 이름 확인하신 후, 납부하시는 세대주 성함과 헌금 종류를 구분해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사무장에게 문의바랍니다.(732-258-5998)

교무금 및 헌금 납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신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요한 20,19-23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신앙 칼럼

###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참행복”에 대한 다섯번째 가르침

####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섯 번째 ‘참행복’에 대해 살펴 봅시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마태 5,7) 이 다섯 번째 ‘참행복’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행복의 원인과 열매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며, “자비로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비는 하느님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루카 6,37) 라고 하십니다. 항상 동일한 상호성입니다. 야고보서는 “자비는 항상 심판을 이긴다”(야고 2,13)고 말합니다. ‘주님의 기도’에서도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도 용서하셨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마태 6,12)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용서하는 것과 용서를 받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는 일을 어려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용서하는 일은 마치 매우 높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용서할 수 없어. 이건 용서가 안돼’라고 생각합니다. 자비의 상호성은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혼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사실, 다섯 번째 ‘참행복’이 우리에게 자비를 얻을 것이라고 약속한다면, ‘주님의 기도’는 잘못에 대한 용서를 청합니다. 이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채무자이며, 자비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너그러우신 하느님에게, 형제들에게, 모두 채무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마땅히 돼야 하는 아버지나 어머니, 남편이나 아내, 형제나 자매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음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행해야 할 선에서 항상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러한 빈곤이 용서할 힘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처럼 우리도 판단 받는다면 (루카 6,38 참조), 판단을 자제하고, 부채를 탕감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해야 하고, 용서를 필요로 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비결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로마 5,8 참조) 하느님의 용서를 받으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각자의 비참과 각자의 의로움의 결핍은 하늘나라를 향해 더 큰 기준, 곧 자비이신 하느님이라는 기준을 향해 자신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8)라고 하십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들이 수록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842항 참조)자비는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이며, 자비 없이 그리스도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교 전체가 우리를 자비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모든 영적 여정의 유일하고 진정한 목표이며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829항 참조)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의 구원이며 행복입니다. 우리는 자비 안에서 살고 있으며, 자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비는 숨쉬는 공기입니다. 다른 조건을 내세우기에는 우리가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 복음 묵상 나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요한 20,19)

1. 예수님께서는 니코데모에게‘영에서 태어난 이’는‘위로부터’태어난 사람이며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다른 보호자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성령께 나의 마음을 활짝 열 때, 성령께서도 내 안에서 활동하시며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아직도 두려워 마음의 문을 잠가 놓고 있지는 않나요?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성령을 받아라.”(요한 20,22)

2.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직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시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에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그 장면과 오늘 주님의 행동을 비교해보고 나누어 봅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3)

3.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용서의 삶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